저탄소 녹색성장 초석의 양성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우송공업대학 – 2009. 3월호	두원공과대학 – 2009. 4월호
유한대학 – 2009. 5월호	수원과학대학 – 2009. 6월호
신흥대학 – 2009. 7월호	경원대학교 – 2009. 8월호
대림대학 – 2009. 9호	**대구공업대학 – 이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공업대학 전경

국내의 기계 및 설비관련 학과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계관련 이론과 다양한 실기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오늘날 첨단 기계 산업의 발달 및 다양화에 따라 생산 및 생산시설 관리, 제품 설계 및 제작, 엔지니어링 마케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충실히 담당할 중견 전문가 양성도 담당하고 있다.

기계 설비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기계설비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계 및 설비관련 학과는 2009년 현재 전국의 13개 대학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3월호부터 전국의 기계 및 설비관련 학과를 소개한다.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은

- 1983년 9월 건축설비과 40명 정원으로 인가. 1984년 3월 개설
- 2002년 3월 건축환경설비과로 개칭
- 2005년 3월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로 개칭 정원 100명
- 2009년 3월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정원 70명
- 현재까지 23회에 걸쳐 약 2500여명 졸업생이 설비분야 및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 담당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교육내용 및 교육목표

21세기는 첨단지식정보화사회로써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함에 따라 현대건축물은 친환경화 되어가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추세이다.

또한 복잡 다양한 사회변혁 속에 발생하는 재난과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는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은 각 전공에 걸맞은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설비건설인 양성을 위한 노력

-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은 기계설비계열로는 대구지역 유일학과로 대한설비건설협회와 산학협력을 구축, 산업체의 기술집약적 요구에 부합하는 설비기술인 양성
- 현대 건축물이 친환경화 되어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의 성장동력 추세이므로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 현장적응력이 높은 전문기술인이 되도록 지도
-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을 건축설비, 소방방재, 신재생에너지 3개 전공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현직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 전문기술인 양성
-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의 기초실습은 재학생 간에 도제제도인 기초학습튜터링 실시
- 취업을 앞둔 졸업예정자들은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취업멘토링을 통해 산업체에서 경험한 기술을 후배에게 전수하는 과정을 통해 명실공히 뛰어난 설비건설인 양성 목표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의 장점

- 건축설비 및 소방기술 신재생에너지 전공에 따른 폭넓고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2005년 이후 취업희망자 100% 정규직 채용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와 산학협력 체결로 다양한 장학금 수혜
- 신재생에너지설비인 지열,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대학 내에 갖추고 있어 항시 체험학습 가능
- 대학 평생교육원에 건축설비학과 학점은행제가 설치되어 학부과정의 학위취득 가능

▲ 학과 교수 소개

교수명	담당과목	직위
권태정	CAD, 관계법규	전임교수 / 계열장
조영래	건축구조, 건축계획, 설비설계	전임교수
안창환	신재생에너지개론, 위생설비	전임교수
김영근	전기공학, 자동제어	겸임교수
유장호	공기조화, 난방설비	겸임교수

연락처

-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학과사무실 053)560-3920

▲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첨단 강의실 및 실습실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유레카!

고대 그리스 시라쿠사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왕 히에론 2세로부터 자신의 왕관이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몹시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공중목욕탕에 갔다가 물이 가득 했던 욕조가 자신이 들어가자 넘치는 것을 보고 순간 좋은 생각이 났다.

물 곳에 물체를 넣으면 물체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데, 금은 은보다 무겁기 때문에 같은 무게의 은덩어리는 금덩어리보다 더 많은 물이 넘친다.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벌거벗은 채로 "유레카(나는 발견했다)! 유레카!"라고 외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실험을 해서 왕관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증명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中에서